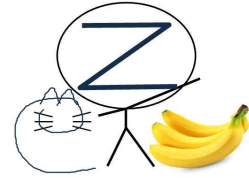


오르비

1타 같은 N타

EBS 수능 완성 Zola Guid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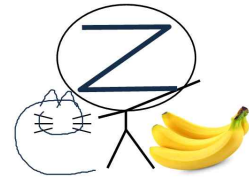
[주의] 1. ebs 교재 내용에도 오류나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음. 특히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 것. 2. 자료와 문제에서 관심 가질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빠르게 정리하는데 도움될 것임. 3. ebs 오류 및 수정 공지도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것.

1. 개념 부분

* 보는 법 : 숫자(쪽수): Zola Guide

- 4: 자료와 친해지기: 이런 자료는 공부하는 것이 아님. 우리가 공부해야 할 '특정' 사상가의 주장이 아닌 이상은 그냥 넘어가면 됨. 이걸 공부하고 심지어 이걸로 문제를 출제(어떤 사실)하는 것을 보고 경악해서 드리는 말씀임. 굳이 하자면 독해형이지 지식형은 아님.
- 10: 자료와 친해지기: 동양 사상은 수특/수완 자료와 제시문 모두 잘 봐둬야 함. 동양 사상은 제시문 독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 공부 착실하게 해야 함.
- 11: 자료와 친해지기: 최근 2년 정도 넘들은 공리주의 문제 자꾸 틀리고 있음. 뭐가 문제니????
- 18: 자료와 친해지기: 에피쿠로스파와 장자(도가)를 헛갈리는 분들 많음. 조심해야 함.
- 19: 자료와 친해지기: 싱어가 대사상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싱어의 입장을 암기할 필요는 없음. 눈팅하면서 싱어의 일관된 사고 방식을 확인해 둘 것. 싱어가 공리주의라는 것을 이용하면 어지간한건 다 풀림.
- 26: 자료와 친해지기: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에 대한 내용은 환경 윤리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것.
- 33: 자료와 친해지기: 길리건은 몰라도 배려윤리는 알아야 함.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차이점,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상호 비판 내용도 알아둘 것(이건 개념 강의에서 확인해야 함).
- 34: 자료와 친해지기: 가족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'유교'여서 중요함. 동양 사상 관련 내용은 모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음.
- 39: 자료와 친해지기: 제시문을 선지로 활용했을 때 정답률 낮은 부분이 있으니 꼭 읽어볼 것.
- 40: 자료와 친해지기: 사회적 자본은 출제된 적이 있음. 단, 독해형임. 한 번 읽어 둘 것.
- 46: 자료와 친해지기: 롤스의 '순수' 절차가 뭔지 알아 둘 것. 윤사도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당시 가장 정답률 낮은 문제였음.
- 47: 자료와 친해지기: 환영합니다. 알차님! 확인하자!

- 54: 자료와 친해지기: ‘공자’ 몰라도 되지만 유교는 알아야 함. 대동사회는 유교의 이상사회임. 각 사상 또는 사상가들의 이상사회(바람직한 사회의 모습, 정의 사회)에 대한 내용은 알아두는 것이 좋음. 국가관으로도 출제 가능함.
- 55: 자료와 친해지기: 사회계약론의 개념 숙지해둘 것! 3명의 사상가 중에서 홉스와 로크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함. 윤사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윤사만큼 세세하게 비교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임. 적어도 올해는 그러할 듯.
- 56: 자료와 친해지기: 싱어의 시민불복종은 이제 필수가 될 듯함. 출제자 입장에서는 님들이 싫어하는 말장난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니 제시문 잘 확인해 둘 것.
- 57: 자료와 친해지기: 최근 2년 정도 요나스가 너무 쉽게 출제되고 있음. 한 번쯤 통수 맞을 때가 된 것 같음.
- 69: 자료와 친해지기: 외울 것은 아니고 읽어 볼 것. 참고로 로크의 노동 이론은 노직도 애용(?)하였음.
- 77: 자료와 친해지기: 제시문이 테일러와 레오폴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제시문인 것은 알겠니?
- 78: 자료와 친해지기: 동양 사상은 모두 확인!!
- 93: 자료와 친해지기: 뒤르캠의 종교 얘기도 나올 때가 되었음. 단, 독해로 가능함. but(벗뜨)!!! 엘리야데 입장은 알아둘 것.
- 104: 자료와 친해지기: 현실주의·이상주의 30분만 개념 공부하면 맞출 수 있음. 그런데도 올해 6평에서 님들은 털렸음.
- 105: 자료와 친해지기: 칸트의 영구평화론도 잘 알아둘 것. 단독으로도 출제되고 다른 사상(가)이랑 엮어서도 출제됨.
- 106: 자료와 친해지기: 해외원조 사상가도 필수 정리해야 함.



2. 문제 부분

* 보는 법 : 숫자(쪽수)-숫자(번호): Zola Gui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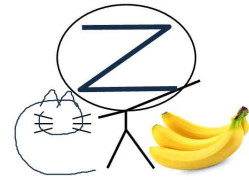
- 8-5: 밑의 자유론에 대한 내용 확인할 것. 모르면 개념 강의 찾아서 들을 것.
- 8-6: 한자어가 선지로 나오면 털릴 것 같기도 함. '주일무적'이나 '상성성'이 설명없이 서술되면 님들 실력으로 독해가 안 될 듯함.
- 9-7: 이 사상가도 잘 알아둘 것.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중요도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음. 누군지는 직접 확인할 것!
- 12쪽~17쪽 모두 확인!
- 12-1: 동양 사상의 공통점 잘 확인해 둘 것.
- 14-5: 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선지들이 있음. 확인하자.
- 14-6: 병 제시문 선지로 나와도 맞출 수 있기를 바람.
- 15-7: 생운 수준에서는 생소한 선지들이 있음. 확인!
- 17-12: 독해로 가능하지만 딱 봤을 때 무슨 개념인지 알기를 바람. 모르는 개념이 나올 때 바나나들은 기존의 개념에 끼워맞추다가 틀리기도 함. 적어도 교과서에서 있는 내용은 모르는 일은 없기를 바람.

◎교과서 보는 법 관련 칼럼◎

오르비: <https://orbi.kr/00016821123>

수만휘: <https://cafe.naver.com/suhui/19861276>

- 20-1+2: 동양 사상 제시문 확인. 동양 사상 제시문은 어디에 있는 문제이든지 꼭 확인할 것. 더 언급하지 않겠음.
- 21-3: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이 이번 교육과정에 새롭게 들어왔음. 제시문으로 확인할 것.
- 23-8: 싱어이네요. 독해 연습해 보셈.
- 29-6: '유정성'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음. 단어 공부하셈!
- 30-7+31-10+32-11: 환경윤리 문제임.
- 35-2: 수능에서도 인생에서도 '사랑'에서 가끔씩 통수 맞음...ㅏㅏ
- 38-8: 전통적인 유교 가족윤리임. 선지 잘 확인. 지식 공부 착실하게 해 둘 것.
- 45-10: 사회적 자본 독해 연습해봐!
- 48-1: 최근 니부어 정답률이 살짝 떨어지고 있음.
- 49-3: <보기> ㄴ같은 바나나 선지에 말리면 안 됨. 아래 강의를 100% 도움됨.
- [무료] Zola 생운 0 - part 1
<https://class.orbi.kr/course/1821>
(교재도 무료 오픈되어 있음)
- 49-4: 왈처님 등장!
- 50-6: 선지 잘 확인해 둘 것
- 51-7: 운사 기출이랑 비슷함. 확인해두자!
- 52-9: 을(노직), 병(롤스) 제시문이 생소함. 선지로 출제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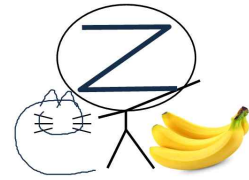


- 52-10: 갑-을 제시문 잘 확인. 제시문에서 ‘만’, ‘오직’ 이런 것 붙는 부분도 확인해 둘 것. 선지로 나오면 헛갈릴 때가 많음.
- 57쪽~61쪽: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많음. 모든 문제 잘 확인해 둘 것. 기출 자체가 없음(새로 추가되어서). 굳이 찾자면 14학년도 생윤과 윤사 나누어지기 전의 윤리 내용 중 일부임.
- 58-3: 갑, 을 사상이 공부해둬!! 문제만 풀지 말고 공부를 해둬!!
- 59-5: 애네들도 공부해둬. 단, 서양은 사상이 정리 전에 <본성론, 동의론, 혜택론, 자연적 의무> 이렇게 네 가지 개념 확인해 둘 것. 교과서에 있음.
- 60-8+61-9: 사회계약론자 문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제시문과 정답만 잘 봐둘 것. 그리고 님이 잘못 선택한 선지 즉 오개념 없애고!
- 79~84쪽: 환경 윤리 다 풀어!!! 단,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마! 제발 식물인간은 어찌구 저찌구...이딴 생각하지마!!!!
- 91-10: 칸트임. 알아둘 것. 나머지는 개념으로 풀면 됨.
- 101-3: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는 확인!
- 101-4: 원효 새롭게 들어온 사상가임. 격하게 환영해줄 것!!
- 107-1+109-5: 국제관계이론임. 1차 생윤 시절(14학년도~16학년도)에 있던 내용임. 공부하고 풀면 됨!
- 108-3: 칸트라고 하지 말고 칸트 영구평화론을 딱 외워! 단 칸트 의무론 개념 이용하면 조금 더 선지들을 쉽게 풀 수 있음.
- 109-6: 갈통 무시하지마! 제시문에 킬러 선지가 있음.
- 110-7: 정의 전쟁론 문제임. 5개 중에서 1개 교과서만 다루고 있음. 수특·수완 내용은 안 다름. 그러면 아마 출제 가능성도 낮고 출제되더라도 독해형일 듯. 독해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볼 것.

이상입니다.

그리고

뒤에 있는 모의고사 1~5회 풀어보시구요^^



-----다음 쪽은 홍보입니다. 버려도 됩니다.-----

-----Coming Soon-----

졸라시발(Zola Cival)의 정신

어떤 주제는 매년 나옵니다.
어떤 주제는 2~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.
어떤 주제는 5~10년에 한 번 나옵니다.
어떤 주제는 생운 역사상 딱 한 번 나옵니다.

그러나

어떤 주제이든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.

그것이 올해 수능의 킬러 문제이면 어찌시겠습니까?

이 모의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킬러 난이도입니다.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도 있고
그렇지 않은 주제도 있지만 모두 킬러 난이도입니다.

오로지 킬러이기 위해 만들어진 문제입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

지엽은 없습니다.

철저히 교과서+기출+ebs에 한정되어 나온 핵심들일 뿐입니다.

모의고사에 대한 평가(오르비 · 수만휘 글들 모음)

- (1) 뉘-기출-교과서 풀반영이구요. 표현들이 윤리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국어적으로 굉장히 깔끔했어요. 강추함.
- (2) 진짜 졸시모 수능형 1회 풀었는데...감히 현존하는 생운 모고 중 1등이라고 생각해요..그 어느 모고보다 해설이 자세함...
- (3) zola 모의 수능형 문제들도 쉬운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!
- (4) 수능형1회 풀어봤는데 난도나 포인트면에서 쓰스트트였음 ... 1~5번 푸는데 기출에서 봤던 내용들이 진짜 이쁘고 뷰티하고 인테그리티하고 스테이빌리티하게 변형돼있길래 "카- 사쓰가 이름값하는 정통이네-" 하고 푸는데 9번쯤인가에서 독배기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... 해설지봤더니(굉장히 상세함) ... 제가 틀리거나 헛갈린 부분이 전부 교과서나 기출기반임
- (5) 난이도는 평가원 이상입니다. 한 큐에 바로 딱딱 풀리는게 아닌 ... 제 독배기를 부수기에 충분했고, 기고만장하신 우리 생운 고정1 or 50분들은 이 기회에 한 번 문제를 푸시면서 자기 상태를 점검&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-----Coming Soon-----

(빠빠로 데이를 목표로 하고 있음)